

Vending Industry News

2007년 봄>> 자판기산업계 최신뉴스 & 정보

캐리어, 원두커피자판기 성능 업그레이드

캐리어가 기존 원두커피자판기의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시켰다. 이번 출시된 변경상품 수프리모 원두커피자판기(모델명 CVK-6024FNB)는 주 제품수요층인 대형 OP업체의 니즈에 맞게 판매용량을 크게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원두는 500잔, 일반커피는 600잔까지 용량 소화가 가능하고 설탕 618잔, 밀크 350잔, 우유 175잔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용량의 확대는 대형OP업체의 운영효율 및 관리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의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

디자인을 원두커피자판기 특성에 맞게 약동적인 레드 톤으로 개선한 점도 특징이다. 유럽형감각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고객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게 했다.

대용량에 걸맞게 다양한 음료 선택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원두커피 메뉴 6종, 인스턴트 4종, 우유차 2종 등 총 12종의 음료를 판매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온음료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판매되는 원두커피는 카푸치노, 카페라떼, 카페모카, 모카치노, 에스프레소, 카페아메리카노 등 6종류. 100% 원두를 직접 갈아 신선한 맛과 원두의 향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 했다.

기존 6.5온스 컵(300개)외에 대용량 9온스 컵(300개)을 장착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원두커피의 전메뉴는 설탕있음, 없음으로 판매버튼이 구성되어 고객의 입맛대로 커피를 뽑아 맛있게 할 수 있게 했다.

원두실물 전시와 추출시간 LED표시 기



능도 돋보이는 성능이다. 커피추출 시간이 4단계 LED로 표시되어 기다리는 데 지루함이 없고, 추출시간 역시 25초로 획기적으로 줄었다.

제품의 소비자가는 5,500,000원(VAT포함)이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제13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제13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강남 신사동 영동호텔 2층 목련홀에

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2006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2007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회비부과기준, 임원개선 등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김용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더 이상의 바닥이 있을 까 할 정도로 심각한 부진을 보였던 시기였다"며, "올해는 기필코 성장세의 시장으로 견인시켜 지난해가 경기불황의 바닥을 찍은 시기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회원사의 더욱 큰 노력과 분발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는 자판기 산업의 창조적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꿈꾸며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자판기 산업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1호 의안인 2006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이 상정 통과된데 이어, 제2호 의안 2007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3호 의안 회비부과 기준이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2007년 협회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계

획으로는 2007 프랜차이즈 서울 Spring 자동판매기 전시관 구성, VENDING KOREA 2008개최 준비, 신 1000원권 발행 및 화폐변경대응, 자판기 개정 표준약관 사용 및 유통시장 정화, 자판기관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정책건의, 자판기분쟁 조정, 음료자

판기 자주 가이드라인 제정, 탄산음료 자판기 초중고 학내 설치 규제 대응, 자판기 OP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자판기 시장발전 저해 규제완화, 중소기업육성 대책 마련, 협회지 VENDING INDUSTRY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제4호 의안 임원개선은 최근 자판기

산업의 기반이 취약해진 만큼 현재의 임원들을 연임하도록 하는 안이 상정 통과되었다. 제4호 의안 임원 개선을 마지막으로 공식 행사를 끝내고 회원사간 오찬과 담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총회 인사말



김 용 일 회장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사 여러분!

최근 경기불황으로 사업하시는 데 애로점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의 활력처럼 희망찬 에너지를 충전한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계절의 빠른 순환처럼 사업에도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황은 영원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호황의 전주곡일 뿐입니다. 올 한해 새로운 의욕으로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 자판기 산업은 '더 이상 바닥이 있을 까' 할 정도로 심각한 부진을 보였습니다. 음료자판기의 총체적 시장 부진, 새로운 시장 개척 부진 등의 시장 악재가 작용했습니다. 자판기 산업의 위기의식이 어느 때 보다 가중되었으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2006년의 아픈 기억은 이제 떨쳐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산업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와 분발의지입니다. 올해는 기필코 성장세의 시장으로 견인시켜 지난해가 자판기 산업계 경기불황의 바닥을 찍은 시기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장 반전을 위한 회원사 여러분의 더욱 큰 노력과 분발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협회에서는 올해 부진한 시장상황을 만회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판기 유통구조를 선진화시키고, 시장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완화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자판기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 속에 보다 깊게 투영이 될 수 있도록 위생, 환경, 안전, 절전, 방범 등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년 동안이나 개최가 무산되었던 VENDING KOREA 전시회를 2008년도에는 부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판매시장이 취약해진 현 상황에 있어 잠재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마케팅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졌습니다. 자판기 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비전 부여를 위해 내년도는 반드시 전시회가 개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원사 여러분도 전시회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원사 여러분!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판기 시장의 창조적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자판기 산업의 위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창조적 에너지의 중심에 바로 회원사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찬란한 자판기 산업의 미래를 위해 진취적인 분발이 적극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회원사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하시기를 바라며,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